

칠레 학생들의 격렬한 불만

팔로마 베나비데스

최근 칠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칠레 교육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는 학생운동이다. 이는 2006년 ‘펭귄 혁명’ (Revolución Pingüina)이라 불리는 시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이름은 칠레 고등학생의 교복이 펭귄과 닮았기 때문에 붙여졌다. 칠레 역사에서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운동과 데모가 많았지만 펭귄 혁명은 칠레 사회에 가장 큰 파장을 남긴 시위로, 2006년 5월 30일 6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 나와 칠레 교육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칠레 역사상 가장 대규모 시위로 기록되었다.

2006년 4월, 칠레 정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수험료를 인상하고 2007년부터 학생들에게 발급하는 대중교통 카드의 사용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산티아고 시내 거리에 모여 가난한 학생에게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학생들이 계속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으로써 첫 번째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한 경찰의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되었고, 시위 도중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공공재가 파손되기까지 했다. 결국 며칠 후, 교육부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수험료 지원과 학생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가중인 학생들
(이미지 출처: <http://pagina95.com/>)

들의 대중교통 카드의 사용한도를 예전대로 유지하겠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아 학생들의 시위는 계속되었고 대 정부 요구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수험료를 무료로 하는 것과 학생 교통카드 제도의 개선, 전일제 수업제도(Jornada Escolar Completa)²⁾의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한 개혁이다. 또한 학생들은 군부독재 시절 시(municipalidad)가 운영하던 교육을 국가 통제로 전환할 것, 또한 교육에 관한 국가조직법(Ley Orgánica Constitucional de Enseñanza)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군부독재 말기에 생겨 계속 유지된 이 법은 개인 투자자들의 학교 설립 자유화와 정부의 간섭 최소화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정부가 침묵으로 대응하면서 시위는 점점

2) 파트리시오 아일윈(Patricio Aylwin) 정부 교육 개혁 때 시행된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더 커졌다.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대통령의 대답을 듣기 위해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중·고등학교 내에서 몇 주 동안 농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학생운동은 전국의 250여 개의 중·고등학교의 수업을 동시에 몇 주 동안이나 마비시킬 정도였다. 대학생, 교사, 학부모, 관련 단체 또한 칠레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학생운동을 지지하고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생운동의 특징은 중·고등학생들의 뛰어난 조직과 관리이다. 학생들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요구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가치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체제를 갖춘 학생 국회를 탄생시켰는데, 여러 학교의 대표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똑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자치를 이념적인 토대로 한 이 모임은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과 운영을 통해 다양한 주제(예를 들어 안전, 위생, 영양, 통신 등)의 시위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개입을 피하고 조직의 수평적인 운영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시위를 벌인 대부분의 중·고교 기물은 훼손되지 않았다. 오히려, 점거기간 동안 학생들은 낙후된 학교의 기반시설을 직접 수리하기까지 했다. 소식을 작성하고 알리는 일은 주로 인터넷, SNS, 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루어졌다.

학생시위는 칠레 교육제도의 맹점에 대해 전국민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했다. 결국 학생시위의 압력 아래 정부는 교육부를 재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혁, 교육에 관한 국가조직법의 개선, 공립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가난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학생들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권 발급 등을 제안하게 되었다.

2008년,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시위운동을 재개하였다. 주요한 이유들은 학생 교통요금의 인상, 주요 2개 국립대학의 파산 직전의 재정상황, 교육에 관한 국가조직법의 개혁안으로 나온 교육일반법(Ley General de Educación)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교육일반법이 비판을 받은 이유는



농성중인 어느 학교의 모습
(이미지 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

2006년 교육의 시영화 및 영리 추구를 폐지하라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대중매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중상모략으로 내부 지지기반이 약화되면서 이 시위는 2006년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주요 국립대학의 파산 직전의 재정상황과 2008년 학생시위로 ‘교육 2020’ (Educación 2020)이라는 비정부 기구가 창립되었다. 이 기구는 칠레 주요 대학 학생들이 구성한 것으로 2020년까지 칠레 교육제도를 개혁한다는 취지 아래 양질의 개혁을 모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준을 개선시키며, 공교육의 제도 및 재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2011년, 칠레학생조합에 의해 ‘칠레 학생들의 겨울’ (El invierno estudiantil chileno) 혹은 ‘칠레 학생들의 봉기’ (Estudiantazo chileno)

라는 이름의 학생운동이 또다시 추진되었다. 이 조합은 칠레의 가장 전통적인 대학교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연합으로 장학금 지급 지체, 학교 재정 문제, 학생 교통카드 관련 문제를 다루었다. 시간이 갈수록 시위는 점점 확산되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면서 민주화 이후 가장 대규모 시위, 대규모 사회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인 칠레의 초·중·고교 교육 수준,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시피 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 예산의 75% 이상을 충당하는 재정 문제를 비판하는 등 이 시위는 칠레의 교육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저항이다.

학생들의 요구는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대학진학 시스템 마련, 고등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 대학교육 제도의 민주화와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대학을 통해 영리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와 개혁을 위한 제현의회 소집 요구도 있었다. 요구들 가운데 중·고등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일반법 폐지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전국의 학교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경제적인 안건으로는, 양질의 무상교육을 위해 유네스코 및 OECD의 권고에 따라 교육 예산을 국내 총생산의 4.1%에서 7%대로 증액하는 것을 제안한다. 공공지출 확대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구리 산업의 재국유화 제안한다.

이번 시위는 전국 학생들의 대규모 참가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2006년의 학생운동만큼이나 빈번한 농성과 시위가 있었고, 여러 대학 및 중·고등학교에서 몇 달 동안 수업이 중단되었으며, 약 600 개의 학교에서 동시에 농성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액티비즘(cyberactivism)의 존재는 너무나 강력했다. 항의의 표시로 정부의 홈페이지 다수가 해킹 당했고,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한 누적 채무 관련 댓글을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http://www.yodebo.cl>)가 만들어졌다. 4개월 후, 이 홈페이지는 5,000 여 명의 학생들이 645억 페소(한화 약 1,325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음을 알렸다. 게다가 이번 학생운동에는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의 동참이 이루어졌는데 플래시몹, 콘서트 및 스포츠 활동



까밀라 바예호

등이 그 예였다. 반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시위 중 하나는 몇몇 대학생의 단식 농성이었다.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지지 덕분에, 공공위생 분야의 전문가들 또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칠레노동조합총연맹(CUT: 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 de Chile) 까지도 학생들의 시위를 지지하고 자신의 요구를 알리고자 이들 동안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통해 농성에 참여하였다.

이 학생운동의 힘 때문에 세바스티안 피네라(Sebastián Piñera) 정부는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받아들이고 세 차례에 걸쳐 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들에는 교육기금 조성, 대학의 영리 추구 금지, 이를 감시할 교육위원회 및 대학 감사기구 선정, 공교육 국영화, 장학금과 학

자금 대출 시스템의 개혁, 양질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아직도 불만이 많다.

학생운동 덕분에 칠레의 젊은 층에 대한 사회 여론이 완전히 변했다. 1990년대 칠레의 젊은이들은 “난 상관없어”(No estoy ni ahí) 라는 문장으로 대표되는 집단, 즉 나라의 상황이나 정치에 무관심한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육과 칠레의 미래에 대단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이후 국민들은 예전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시위의 주역들은 조르지오 잭슨(Giorgio Jackson), 노암 티텔만(Noam Titelman), 가브리엘 보릭(Gabriel Boric)과 카밀라 바예호(Camila Vallejo) 등의 대학생 지도자였다. 특히 카밀라 바예호(Camila Vallejo)는 2011년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 의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타임》(Time)지에서도 올해의 제일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다.

필자는 칠레 내의 현격한 교육수준 차이를 직접 경험하였고, 필자가 보기에 칠레의 모든 사회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다. 그러나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덕분에 칠레 국민들 또한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 시스템의 진정한 변혁을 통해서 평등하고 발달된 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다. 그뿐 아니라, 사회 이슈에 관심이 없던 칠레의 젊은이들이 칠레의 미래를 걱정하고 사회 체제를 바꾸기를 결심한 것을 바라보면서 필자는 희망뿐 아니라 자부심까지 가지게 되었다.

칠레의 교육현실과는 달리, 한국은 교육의 질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PISA 랭킹(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의 문해(文解)율은 98%에 이르며 약 98%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60%의 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한다. 또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뛰어난 공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시킨다.

대한민국 교육의 성공은 주로 한국 정부와 사회가 교육을 중시한다는 것에 근거하는데, 교육 분야에 국내 총생산의 7%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대한민국 교사의 높은 수준을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존경 받고 평판이 좋은 직업 중 하나이며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 받는다. 한편, 매년 학부모와 학생에게 평가 되기에 교사들의 수준이 관리되며 수업에서 많은 e-북과 온라인강의가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이루어낸 눈부신 경제 발전의 주된 원인은 의심할 여지없이 높은 수준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으로 인해 한국은 세계15위의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사회변화를 이루어냈다.

대한민국 교육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학생들도 칠레 학생들처럼 교육제도와 관련된 불만이 있는 것 같다. 한국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할 뿐더러 학원에서도 공부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일주일에 평균 16시간 더 공부한다고 한다. 친구들과 늘 경쟁해야 하는 상황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학생들 간의 높은 경쟁심은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감소시킨다. 또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 편으로 선생님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교육제도 또한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시험과 평가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에서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지는 불만은 높은 수준의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타난다. OECD 가맹국 중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한민국은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의 15~24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이러한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을 대중 앞에서 드러낸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 교육제도의 현실을 비

판하고 대학교 졸업장을 포기한 고려대학생과 서울대학생의 유명한 사건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자살 예방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장시간의 공부와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생들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칠레와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의 상황은 정반대이다. 교육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학생들은 자신들이 처한 교육 상황에 다양한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필자 생각에 모든 나라에서 교육의 주된 역할이란 국민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국민 개인이 행복해지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하겠다. 칠레나 대한민국의 상황은 교육제도를 통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목적대로 교육제도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양국의 특수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교육제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과 개인의 행복과 만족 추구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가? 양국의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국민들뿐 아니라 양국 정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이 상황이 나아져서 양국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식의 교육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팔로마 베나비데스(Paloma Benavides) - 칠레인으로 2012년에 한국에 왔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문화사회심리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